



육아지원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와 과제





*사진: SBS_2018. 4.27.

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통일방식은?

"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"를 가장 많이 희망함. 따라서 당장의 통일 보다는 남북교류협력이 우선 되어야 함.



- ✓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
- 현재대로가 좋다
-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
-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

[그림1] 희망하는 통일방식(2007-2017)

자료: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(2017). 2017 통일인식조사. p.40.

육아지원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성과

1. 인도적 대북지원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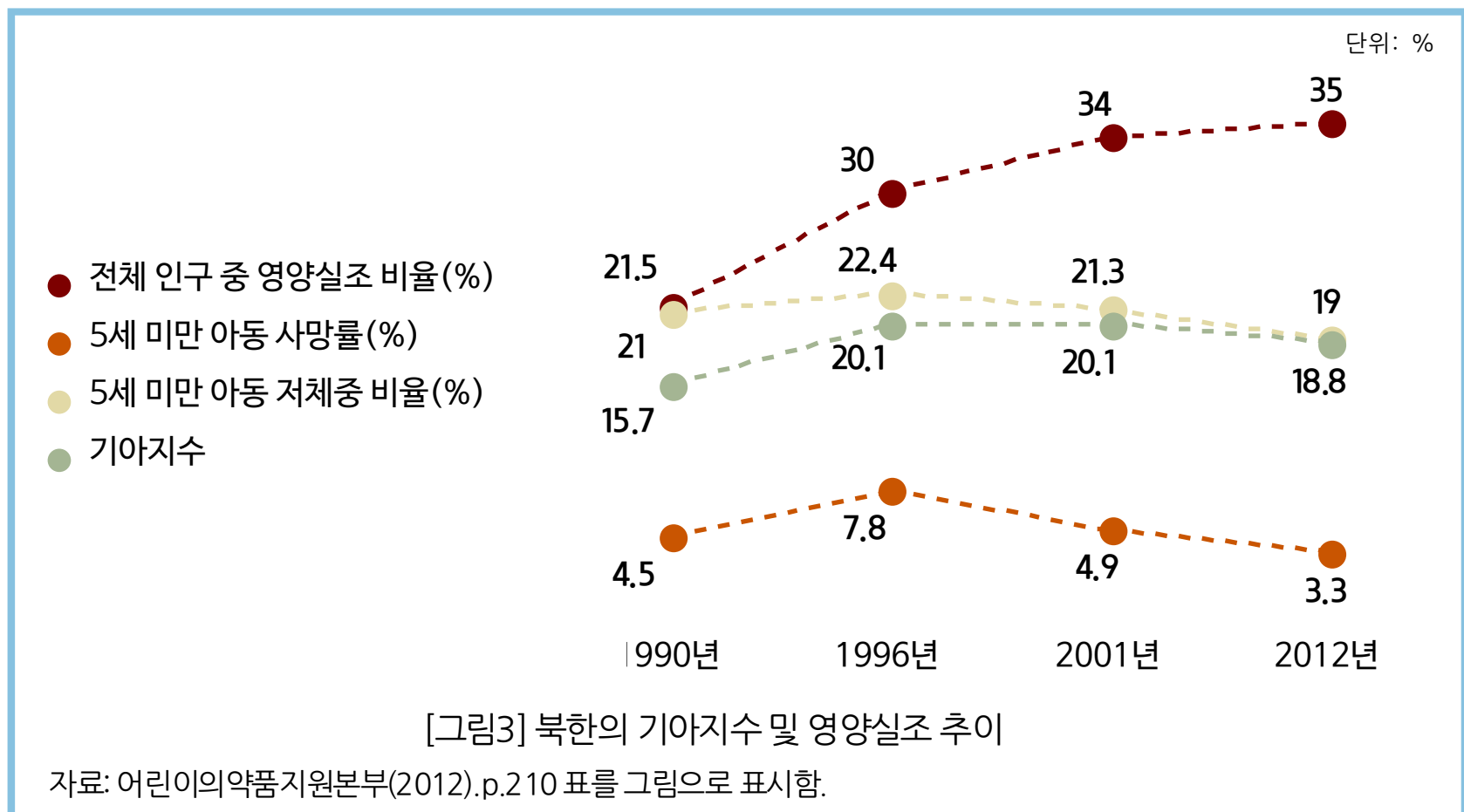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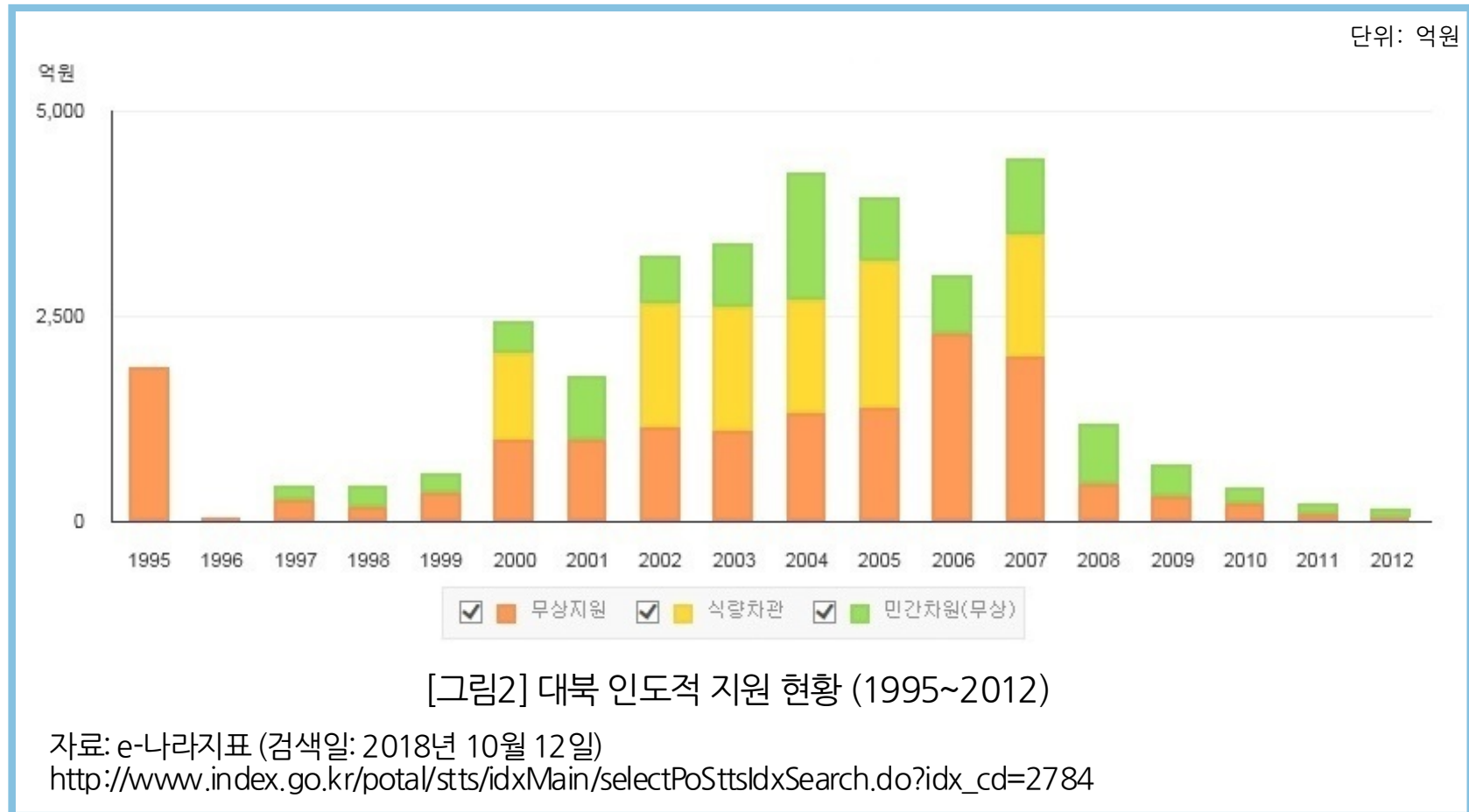


*사진: 공홀사업으로 지원한 요구르트를 먹고 있는 라진 해안유치원 아이들
(사)선양하나2017캘린더



*사진: 자유아시아방송_2015. 7.16.

-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은 북한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산모를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추진해온 가장 오래된 사업.(그림2 참조)
- 그 결과,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지표가 괄목할만하게 개선됨.(그림3 참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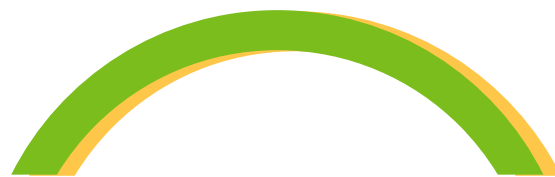
육아지원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성과

2. 남북 공동 아동교육 학술행사 개최



《21 세기를 열어 갈 아동교육》 학술토론회 중국 · 연길 2002년 5월 30일

*사진: 2002년 한국아동학회장 제공



- 육아지원분야에서는 남한의 한국아동학회, 북한의 조선과학자협회, 중국의 연변대학민족연구원이 2002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중국 연길시에서 "21세기를 열어갈 아동 교육"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행사가 유일무이함.



육아지원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성과

3. 개성공단 탁아소 설치



*사진: 통일부_2010.9.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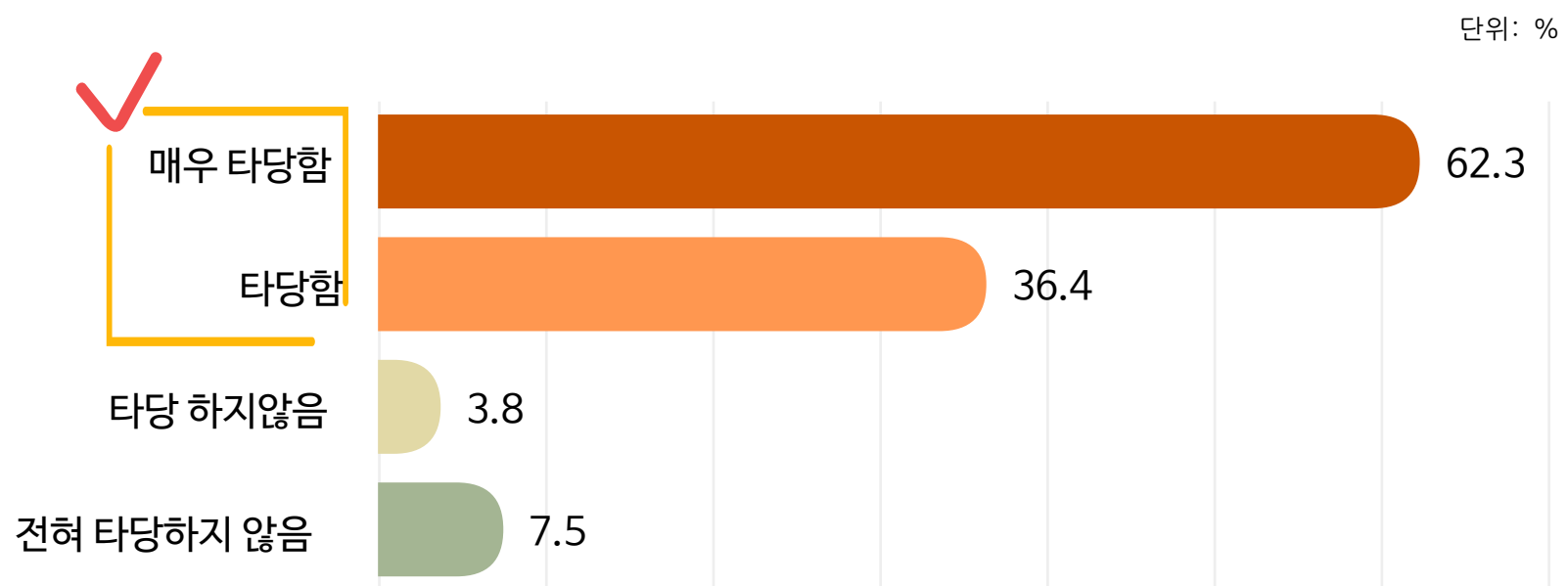
-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모성보호 지원을 위해 2010년 9월 1일 탁아소를 개원함. 북측이 토지를 제공하고 건물은 남북협력기금으로 건축함.
- 개성공단의 근로자 중 70%가 여성인 만큼 탁아소는 필수 시설임. 제2탁아소 부지를 확보해 둘 정도로 탁아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음.



*사진: 라진지역 유치원에서 만난 코끝이 빨간 아이 / (사)선양하나2017캘린더

남북 경험 지구 내 탁아소가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타당한가?

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,
98.7%가 타당하다 (매우 타당함 + 타당함)고 응답함.



1림4] 교류협력 거점으로서 탁아소에 대한 타당성

*자료: 이윤진 외(2015).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연구. 육아정책연구소. p.166

육아지원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

정 책 제 언

- 중단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개발협력사업의 재개로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틔.
- 대북지원사업은 인도적 지원사업을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사업 중심으로 추진
- '남북육아정책포럼'(가칭) 구성 및 남북 공동 학술행사 정례화
- 향후 남북 경제협력지구 내의 탁아소를 남북 합작으로 설치하고 이곳을 육아지원분야의 남북 교류 거점으로 활용

*사진: 라진선양하나신발회사 운동화를 신은 남포애육원 아이들 / (사)선양하나 2017캘린더

육아정책 Brief

통권 제68호 | 발행인 : 백선희 | 발행일 : 2018년 07월 02일 | 발행처 : 육아정책연구소

도래한 ‘한반도의 봄’, 육아지원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개(再開)와 만개(滿開)를 기대하며

I. ‘작은 통일’,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요성

지난해 신베를린 선언,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등 일련의 과정은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견지해 온 ‘민족공동체 통일방안’을 재확인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임.

우리국민 다수도 준비되지 않은 빠른 통일보다는 여건이 성숙된 후의 안정적인 통일을 희망함.

-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‘신(新) 베를린 선언’¹⁾ 발표,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에 이어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 「평화의 집」에서 개최함.
 - ▶ 문재인 대통령은 신(新) 베를린 선언에서 “북한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……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”이라 하면서 남북 체제 인정을 기반으로 한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피력함.
- 상호체제 인정, 대화, 교류를 강조한 한반도 평화정책은 새로운 정책은 아님. 평화정책을 기반으로 점진적이면서 단계적으로 통일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“민족공동체 통일방안”은 보수·진보 정부를 불문하고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임.²⁾
 - ▶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남북관계 단절을 초래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 통일방안도 “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”³⁾하는 점진적, 단계적 통일이었음.
-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수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원함.
 - ▶ 육아정책연구소가 2015년에 전국인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하나의 체제(23.5%)보다는 자유로운 교류협력(38.5%) 또는 다른 두 체제의 평화공존(28.6%)을 통일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았으며⁴⁾,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「통일의 식조사」에서도 선풍 빠른 통일보다 여건이 성숙된 후의 통일을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(그림 1 참조).
 - ▶ 일반적으로 통일이라 하면 남북이 단일 체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, 남북 현 체제 내에서의 교류협력도 “작은 통일”이라 하겠음.
 - ▶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“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·협력 및 왕래·접촉 활성화”가 포함됨.

1)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에 이은 선언이란 의미임.

2) 통일부 홈페이지, <http://www.unikorea.go.kr/unikorea/policy/plan/>(검색일: 2018년 6월 5일)

3) 관계부처합동(2013. 5. 23). 박근혜정부 국정과제. p.236.

4) 이윤진·김아름·강일규·송기웅·임준범(2015).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연구. 육아정책연구소. p.108.

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.



www.kicce.re.kr / 발간물 / 정기간행물

